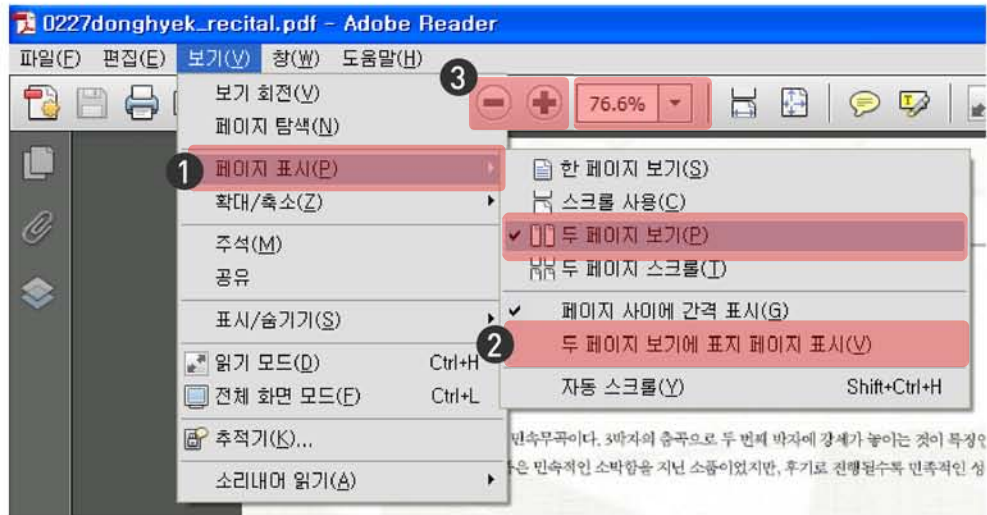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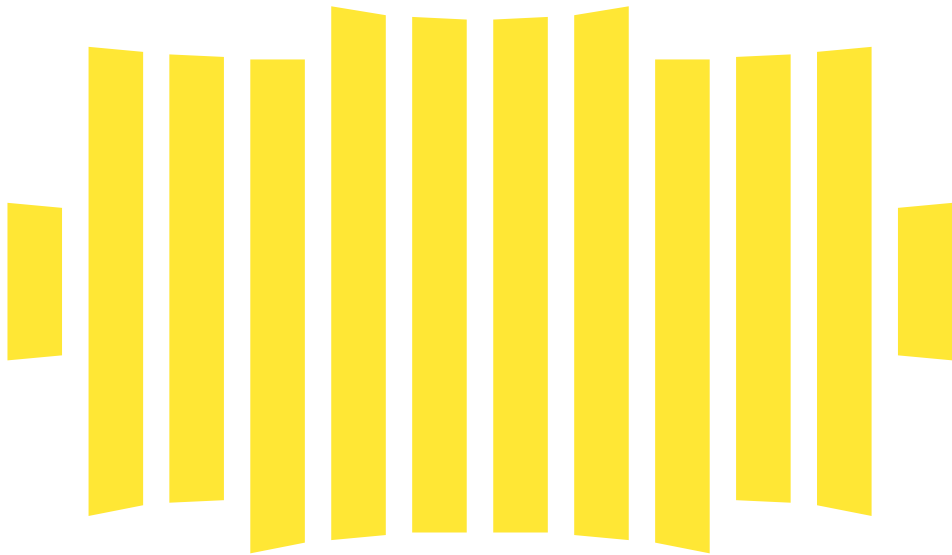
CREDIA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의 프로그램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아래 안내와 같이 설정해서 보시면 더욱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Guide 1 프로그램북 2페이지씩 보기 (프로그램북이 한 페이지씩 보일 경우)



- 1 PDF reader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 선택
- 2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에 표지 페이지 표시 선택 해제
- 3 원본 사이즈로 보기
 확대 및 축소는 -, + 버튼 클릭

Guide 2 프로그램북이 2페이지씩 보일 경우 다른 설정 없이 보셔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



DEUTSCHE GRAMMOPHON
ANNIVERSARY CONCERT

도이치 그라모폰 120주년 기념 갈라콘서트



Designed to Seduce. CREDIA

The New CLS

Mercedes-Benz
The best or nothin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

서울: 강남 (02)513-3000 강남대로 (02)675-7500 강북 (02)6678-7500 강서 목동 (02)6355-0000 동대문 (02)2215-2233 마포 (02)6010-9000 방배 (02)532-3421 삼성 (02)550-4000 서초 (02)550-5000 서초 청계 (02)6007-0100 송파 (02)3434-4000 영등포 (02)6123-1400 용산 (02)709-3800 중앙 (02)2208-0020 정담 (02)6421-1100 판남 (02)6328-7700 경자: 고양 (02)381-9999 구리 (031)579-0900 부천 (032)713-4500 분당 서원 (031)710-8000 분당 정자 (031)786-6000 수원 (031)740-5000 스타필드 화남 (031)8072-8900 안성 (031)8094-6000 안양 평촌 (031)689-8900 용인 수지 (031)5183-9200 의성 (031)907-7777 의정부 (031)878-3333 피주 (031)912-9000 인천 (032)770-8800 인천 송도 (032)860-3300 부산: 김천 (051)320-6000 금정 (051)710-2369 남천 (051)760-2000 부산 북구 (051)678-7000 해운대 (051)709-4300 광안: 원주 (033)741-8800 춘천 (033)903-5000 대전 (042)363-2000 대전 유성 (042)602-2000 천안 (041)620-7000 청주 (043)299-9000 전북: 군산 (063)454-8000 전주 (063)226-8000 순천 (061)900-8500 광주 (062)226-0001 대구 (053)629-9000 대구 서구 (053)624-2000 포항 (054)256-9001 경남: 마산 (055)296-1004 진주 (055)757-8118 창원 (055)280-8300 울산 (052)701-0503 제주 (064)800-9800

www.mercedes-benz.co.kr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LS 400 d 4MATIC (배기량: 2,925cc, 공차중량: 2,085kg, 자동9단), 복합연비: 12.5km/l (도시연비: 11.3km/l, 고속도로연비: 14.4km/l), 등급: 3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153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올 겨울 한국에서 개최되는 도이치 그라모폰의 120주년 갈라 콘서트를 후원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행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저희는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와 함께 지휘자 리오넬 브랑기에를 초청하였습니다.

도이치 그라모폰과 더불어 저명한 예술가들의 뛰어난 작품들은 그러한 문화 유산들이 시간에 바래지 않고 탁월함을 보여왔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헤리티지'의 중심에 있는 가치들이 우리와 우리 미래의 세대들에게 무엇이 'the best'인지를 알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뜻 깊은 공연을 통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강렬하고 아름다운 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가오는 새해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Mercedes-Benz Korea is honored to sponsor Deutsche Grammophon's 120 Years Anniversary Gala Concert in Korea this winter.

To celebrate, we have invited the outstanding pianist Seong-Jin Cho and violinist Anne-Sophie Mutter with conductor Lionel Bringuier for this very special event.

Through the distinguished works of Deutsche Grammophon and renowned artists, we are reminded of the legacy that has brought excellence throughout history.

Mercedes-Benz Korea, also believes the core values of heritage, bringing us what is 'the best' for us and for our future generations.

With such a meaningful performance, Mercedes-Benz Korea wishes the audience a night of exquisite beauty.

We would also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you and wish you all a happy new year.

**President & CEO, Mercedes-Benz Korea
Dimitris Psillakis**



© LAURENCE CHAPERON

친애하는 여러분,

세익스피어의 <십이야>는 다음과 같은 멋진 말로 시작합니다. “음악이 사랑의 양식이라면, 계속 연주하라!” 이번 기념해를 기리기 위해 선정된 축사입니다. 도이치 그라모폰은 지난 120년간 탁월한 클래식 음악의 대명사로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매순간 열정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저희는 두 번의 세계 대전, 다양한 사회적 격변과 전례 없는 기술의 진보를 모두 극복해왔습니다. 과연 무엇이 저희에게 이런 힘을 주었으며, 오늘날 저희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우선, 음악적으로나 인간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뛰어난 음악가들과 도이치 그라모폰의 길고 깊은 유대가 바로 그 힘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과의 전설적인 데뷔 이래 지난 40년을 저희와 함께한 안네 소피 무터는 그녀의 인생으로 이를 보여준 산 증인입니다. 당연히 새로운 세대의 아티스트들과도 이와 같은 건설적이고도 선구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최근 유니버설뮤직에 복귀하여 이미 화려한 도이치 그라모폰 디스코그라피에 새로운 앨범을 더할 준비가 된 아티스트 랑랑은 DG120 갈라 콘서트의 스타 중 한 명입니다. 더불어 다닐 트리포노프는 라흐마니노프 레코딩으로 2018년을 특별한 해로 장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베이징 자금성에서 열린 기념 콘서트에서 라이브로 그의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쇼팽 콩쿠르의 우승자 조성진은 최근 놀랄 만한 모차르트 앨범을 발매하며, 레이블의 실제 생일인 12월 6일을 한국 관객들과 함께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노고에 큰 힘이 되어준 우리의 멋진 파트너, 크레디아와 A&A, 그리고 유니버설뮤직 코리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원동력은 바로 창시자, 에밀 베를리너가 축음기를 발명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술과 음악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레이블의 설

립 당시부터 불가분한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녹음과 재생에 있어서도 그 프로모션과 유통에도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할 것입니다. 아마 그 어떤 클래식 레이블에 견주어도, 도이치 그라모폰만큼 디지털 미디어를 우리의 유산을 이어갈 기회로 보는 레이블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천연수지를 이용했던 바이닐 레코딩을 오리지널 금속 매트릭스를 사용해 놀라운 음질로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는 아시아를 아울러서는 최초로, 음악과 비주얼 그리고 예술과 클럽 문화를 색다르게 결합한 ‘엘로 라운지’를 선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의 글로벌 파트너인 혁신적인 두 회사 구글 아트 & 컬처와 폭스바겐 그룹에서 지원해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난 120년 동안 이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관객이자 청취자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열정, 신의 그리고 무엇보다 비판적인 귀아말로 저희의 독창성과 탁월함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동기이며, 클래식 음악을 통해 감성과 지성의 힘을 발휘할 능력을 지닌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과감한 작품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에 저는 도이치 그라모폰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아티스트들, 청취자들, 파트너들,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계속 연주하라!”라는 인사와 함께.

도이치 그라모폰 사장
클레멘스 트라우트만

Dear friends,

Twelfth Night opens with one of Shakespeare's finest lines: "If music be the food of love, play on!" – a sentiment we've chosen as the guiding spirit of our anniversary year. Deutsche Grammophon has been a byword for excellence in classical music for 120 years, and we're passionate about continuing this tradition as we move forward. We've survived two world wars, enormous social upheaval and unprecedented technological advances. What gave us that strength, and what motivates us today?

To begin with, Deutsche Grammophon has always drawn its strength from longstanding and deep-rooted relationships with exceptional musicians, something for which we're hugely grateful on both a musical and a human level. We've worked with Anne-Sophie Mutter, who reflects on life with the Yellow Label within these pages, for a remarkable forty years, ever since she made her legendary debut with Herbert von Karajan. And of course it's our goal to establish similarly productive and trailblazing partnerships with a new generation of artists. One of the stars of our DG120 gala concerts is Lang Lang, newly returned to Universal Music and set to add to an already impressive Yellow Label discography. And Daniil Trifonov has not only recorded Rachmaninov in this very special year, but has played his music live during our recent anniversary concert at Beijing's Forbidden City. We are also thrilled to be working with Chopin Competition Winner Seong-Jin Cho, whose stunning Mozart album we recently released, and to celebrate our actual birthday, December 6th, with our audience in Korea. Special thanks go to the teams at CREDIA, A&A, and Universal Music Korea, who have been the most wonderful partners in this endeavour.

Another vital source of our strength is the fact that our founder, Emil Berliner, was also the inventor of the

gramophone. Technology and music – hardware and software, so to speak – have thus been inextricably linked ever since the label was first established. We remain fully committed to investing in innovation,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adopting new recording and playback technologies, but also as regards product promotion and distribution. Perhaps more than any other classical label, we see digital media as an opportunity to ensure that our rich legacy lives on into the future. We're therefore systematically digitising our pre-war shellac recordings, working from the original metal matrices to produce remastered versions of astonishingly high quality. In a separate move, we're bringing our pioneering "Yellow Lounge" format, with its unique musical and visual blend of high art and club culture, to Asia for the first time. And we're delighted to have the support of our global partners Google Arts & Culture and Volkswagen Group, two of the world's most innovative companies, as we unfold our year-long anniversary programme.

The most important reason, however, for our enduring success over the last 120 years is you, our audience, our listeners. Your enthusiasm, your loyalty and, above all, your critical ear, are what motivate us to continue striving for originality and excellence, to make adventurous decisions on repertoire and to seek out the world's finest musicians, artists capable of conveying the intellectual and emotional power of classical music.

With this in mind, I'd like to thank everyone connected with Deutsche Grammophon – our artists, listeners, partners, colleagues and friends – and urge you all to "play on"!

President Deutsche Grammophon
Yours, Clemens Trautmann

2018.12.6(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리오넬 브랑기에

협연 | 피아니스트 조성진

연주 | 서울시립교향악단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라단조 K. 466

- I 빠르게 경쾌하게
- II 로망스
- III 매우 빠르게

CREEDIA

중간휴식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6번 나단조 Op. 74 '비창'

- I 매우 느리게 -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 II 빠르게 우아하게
- III 매우 빠르고 생기있게
- IV 피날레: 느리고 비통하게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RICHARD MILLE



CREZIA

CALIBER RM 07-01

8PM Thursday, Dec 6, 2018 at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Lionel Bringuier, Conductor

Seong-Jin Cho, Pianist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W.A Mozart

Piano Concerto No. 20 in d minor, K. 466

- I Allegro
- II Romance
- III Allegro assai

CREDIA

Intermission

P.I. Tchaikovsky

Symphony No. 6 in b minor, Op. 74 'Pathétique'

- I Adagio - Allegro non troppo
- II Allegro con grazia
- III Allegro molto vivace
- IV Finale: Adagio lamentoso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Arabesque

Limited Edition by DAKOTA JACKSON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전세계 30대 리미티드 에디션,
스타인웨이 160주년 기념 모델 아라베스크.
국내 단 1대 뿐인 프리미엄을 만나세요.



STEINWAY & SONS

(주)코스모스악기는 스타인웨이의 공식수입원입니다.

스타인웨이 공식수입원

(주) 코스모스악기

피아노사업부 02)522-8844 부산지점 051)804-8844 대구지점 053)629-8844 대전지점 042)489-8844 광주지점 062)515-8844

COSMOSMUSIC.COM

2018.12.6(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1756-1791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라단조 K. 466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는 1785년 2월 10일에 완성되어 그 다음 날 열렸던 첫 번째 사순절 예약제 연주회 (150명 이상의 음악애호가들이 예약했다)에서 작곡가 본인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마침 작품이 완성된 날 빈에 도착해서 몇 주 동안 머물렀는데, 딸 난네를에게 쓴 편지에서 이 협주곡을 가리켜 '볼프강이 쓴 새롭고 아주 훌륭한 협주곡'이라고 불렀다. 레오폴트는 주로 부르크 극장에서 데려온 오케스트라도 칭찬했는데, 이 어려운 작품을 거의 초견으로 연주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주 뛰어난 연주자들이었던 것 같다. 자필악보의 카덴차와 경과부가 비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모차르트 자신이 즉흥적으로 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협주곡은 당대는 물론 모차르트의 협주곡이 많이 연주되지 않던 19세기에도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며, 오늘날에도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앞 다투어 연주하는 걸작이다. 베토벤은 특히 이 작품을 좋아해서 즐겨 연주했으며, 브람스, 클라라 슈만, 부조니 등 19세기의 여러 비르투오조 피아니스트들도 자신의 레퍼토리로 삼으며 직접 카덴차를 썼다. 모차르트가 단조로 쓴 단 두 곡의 피아노 협주곡 중 하나인 이 작품에는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을 예고하는 극적인 감정의 분출과 대담한 반음계, 긴장감 넘치는 어두운 색채가 담겨 있는데, 18세기 중반 독일을 강타했던 '질풍노도(strum und drang)' 운동이 빈 고전주의의 정연한 형식미 안에 흡수된 것 같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어두운 음색과 끊임없는 당김음이 깊은 인상을 주는 1악장 도입부는 협주곡 전체의 분위기를 미리 보여주며, 피아노의 열띤 움직임과 오케스트라의 어울림은 마치

오페라의 한 장면을 기악곡으로 바꾸어 놓은 것 같다. 모차르트는 여기서 한 악장이 그 안에서 모든 긴장감을 해결하고 완성되었던 고전적인 형태를 버리고 세 개 악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했는데, 이런 면모야말로 19세기 낭만주의 작곡가들에게 큰 영감을 준 요소일 것이다. 여러 편의 영화에 쓰인 아름다운 느린 악장 역시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두 개의 빠른 악장과 함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며, 모든 긴장감은 장조와 단조가 교차되는 3악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해소된다. 마지막 75마디는 D장조로 밝게 마무리되는데, 이것은 예술 작품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한다는 18세기 법칙('lieto fine')의 긍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1840-1893

교향곡 제6번 나단조 Op. 74

'비창(Pathétique)'

언제나 청중에게 가장 사랑받는 작곡가 중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늘 차이콥스키를 따라다녔던 미심쩍은 시선이나 은근한 평가절하는 20세기 후반 이후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절대 값싼 효과에 호소하지 않는, 뺏속까지 정직한 음악가였으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예술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투했던 성실한 음악가였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작품인 교향곡 6번 '비창'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어쩌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제외한다면 '비창' 교향곡만큼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의문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음악 작품도 없을 것이다. 1893년 10월 28일(당시 러시아에서 쓰던 율리우스력으로는 10월 16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초연된 이 교향곡은 작곡가가 초연 후 9일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데다 사망 원인

을 둘러싸고 시작된 논란이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는 만큼 '마지막 유산, 혹은 유언'이라는 성격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차이콥스키가 그런 의도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곡을 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어쩌면 그가 추구했던 관현악 어법의 절정이자 인간이 지닌 '슬픔'이라는 정서를 자유롭게 묘사한 환상곡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교향곡의 내면에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비창' 교향곡은 교향곡 4번 못지않게 대단히 주관적이고 자기고백적이다. 그는 이 교향곡을 가리켜 '표제 교향곡'이라고 하면서도 표제는 '수수께끼로 남겨 사람들이 직접 생각하게 하자'고 했다. 그러나 한 번도 자신을 완전히 숨기지 못했던 차이콥스키는 마치 듣는 이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바라듯 여기저기 자신의 메시지에 도달하는 실마리를 마련해 두었으며, 무엇보다도 작품 전반에 흐르는 비극적인 정서는 듣는 이에게 깊은 상념을 안겨준다.

1악장이 시작되면서 등장하는 느린 서주는 마치 한숨을 쉬는 것 같은 하강 2도 음계로, 바로크 시대부터 슬픔과 탄식, 고통과 죽음을 상징했던 음형이다. 이 모티브는 매우 짧지만 1악장, 나아가 교향곡 전체를 지배하며, 모든 주제 선율에 숨어서 계속 선율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결국에는 멈추게 만든다. 또 1악장 전개부 다음에 금관과 바순이 연주하는 선율은 러시아 정교회의 위령 성무 전례를 인용한 것으로, 이것 역시 작곡가가 심어 놓은 암시일 것이다. 특히하게도 5/4박자의 왈츠 리듬을 도입한 민요풍의 2악장과 급박하게 휘몰아치는 스케르초 형식의 3악장에서도 애수어린 체념과 음울한 그림자는 끊임없이 모습을 드러내며, 격렬하게 마무리되는 행진곡 풍의 3악장(지금도 3악장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쩌면 관습적인 피날레 악장에 대한 패러디인지도 모른다) 다음에는 특히하게도 느

리고 비통한 아다지오 라멘토소(Adagio lamentoso) 악장이 전체 교향곡을 마무리한다. 기존 교향곡의 전통을 무시한 이 악장은 그야말로 한 편의 위대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일체의 비속함에 빠지지 않은 이 마지막 악장은 차이콥스키의 내면적 고백이자, 자신의 교향곡 작품에 유기적인 구성이 부족하다는 비평을 언제나 뼈아프게 여겼던 작곡가가 모든 장단점을 하나의 결정체로 승화해서 내놓은 최종선언이기도 하다.

차이콥스키는 초연에서 청중의 반응이 미치지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블라디미르 다비도프에게 '교향곡 6번이 내 모든 작품들 가운데 가장 진실한 곡이라고 생각한다. 그 어떤 곡보다도 이 곡을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주 작은 비평에도 당혹스러우리만치 상처를 받은 했던 예민한 작곡가로서는 놀랄 만한 자신감인데, 그는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드디어 '자신과의 화해'에 도달했던 것일까? 차이콥스키가 정말 콜레라로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면 20세기 중반 이후 급속하게 퍼진 주장처럼 자살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어쩌면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을지도 모르지만, '비창' 교향곡은 한 위대한 작곡가의 고독한 내면과 비극적인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고귀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이준형 (음악 칼럼니스트)

2018.12.7(금)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리오넬 브랑기에

협연 |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

연주 | 서울시립교향악단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사단조 Op. 26

- I 전주곡: 적당히 빠르게
- II 매우 느리게
- III 피날레: 빠르고 힘차게

CREEDIA

중간휴식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6번 나단조 Op. 74 '비창'

- I 매우 느리게 -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 II 빠르고 우아하게
- III 매우 빠르고 생기있게
- IV 피날레: 느리고 비통하게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STEINWAY
LYNGDORF

www.steinwaylyngdorf.com



우리가 모르고 지내왔던 것들

ODE Maison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5길 15-6
02-512-4091

ODE Daegu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대구 신세계백화점 5F
053-661-6504

ODE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서길 7
064-799-5008

O D E

www.ode-audio.com

8PM Friday, Dec 7, 2018 at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Lionel Bringuier, Conductor

Anne-Sophie Mutter, Violinist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M. Bruch

Violin Concerto No. 1 in g minor, Op. 26

I Vorspiel: Allegro moderato

II Adagio

III Finale: Allegro energico

CREDIA

Intermission

P.I. Tchaikovsky

Symphony No. 6 in b minor, Op. 74 'Pathétique'

I Adagio - Allegro non troppo

II Allegro con grazia

III Allegro molto vivace

IV Finale: Adagio lamentoso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클럽발코니 유료회원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공연장 매너 이야기

공연장에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여유를 즐기주세요.



안장 사이 방수층의 흐름을 방해해요.



안자리를 발로 차지 마세요.



휴대폰은 잠시 꺼 두셔도 좋습니다.



공연장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안돼요.



크레디아 기획 공연 관람 전 유료회원 모바일 카드를 보여주세요! 프로그램북을 증정 합니다.



(만, 클럽발코니에서 예매해주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15만 공연 애호가들의 선택

JOIN CLUBBALCONY

예매고수의 노하우!

- 크레디아 기획공연 5-30% 상시 할인
- 나만의 비서! 티켓 오픈 무료 SMS 서비스
- 문화애호가 필수품, ClubBALCONY 매거진 무료 우송
- 회원카드 지참시 기획공연 크레디아 프로그램북 증정
- 크레디아 기획공연 단독 선예매 및 예매, 취소, 티켓 배송 수수료 면제
- 1년 3만원, 5년 12만원, 10년 20만원! 만료 후 재가입시 할인 혜택

www.clubbalcony.com | 1577-5266

2018.12.7(금)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막스 브루흐 1838-1920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사단조 Op. 26

젊은 막스 브루흐에게 작곡가로서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준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은 낭만적인 정취가 가득한 서주부터 매혹적인 선율이 흐르는 느린 악장, 정열적인 춤곡의 피날레까지, 그리고 적당한 연주시간과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선율까지, 낭만주의 협주곡의 완벽한 전형이자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의 영원한 애청곡이다. 하지만 또한 이 작품은 브루흐의 긴 삶에서 - '콜 니드라이'를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 다른 모든 작품을 흐릿하게 만들며 그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존재이기도 했다. 언제나 당대 청중의 취향에 완벽하게 부응한 아름다운 작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은 이상한 일이다.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로부터 잊힌 것이었을까?

그렇지만 브루흐의 이름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 준 이 작품,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만큼은 초연 이후 지금까지 바이올리니스트와 청중으로부터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스러운 걸작이다. 그는 1864년에 만하임에서 당대 독일 최고의 비르투오조였던 요제프 요아힘의 연주를 듣고서 바이올린 협주곡을 쓰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바이올린을 공부했던 작곡가는 악기의 기술적인 요소를 잘 알고 있었지만, 첫 번째 대작이라고 할 만한 이 협주곡을 쓰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대여섯 번은 고쳐 썼다고 직접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66년에 코블렌츠에서 초고를 공개 연주해 본 다음 불만을 느낀 그는 요아힘을 비롯해서 페르디난드 다비트, 헤르만 레비 등 여러 음악가들의 자문을 구했으며, 그 결과 수정이 많이 가해진 최종판은 1868년 1월에 브레멘에서 요아힘의 독주로 초연되었다. 자연스럽게 악보

는 요아힘에게 헌정되었다.

브루흐는 원래 작품을 구상하면서 환상곡이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세 악장이 중단 없이 이어지는 형식 등 최종판에도 그 흔적이 역력하게 남아있다. 멘델스존의 흔적이 엿보이는 1악장은 베토벤-브람스 풍의 당당한 음악 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프렐류드라고 할 만하며, 반복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그런 느낌을 더한다. 이어지는 매혹적인 느린 악장은 작품의 심장이자 브루흐가 만들어 낸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피날레 악장은 바이올린이 주도하는 쾌활한 헝가리 풍의 주제(아마도 요아힘에 대한 오마주일 것이다)와 화려한 패시지가 질주하듯 펼쳐진다. 브람스는 언젠가 이 협주곡을 듣다 보면 '끊임없이 등장하는 옛 친구들(익숙한 음악)에게 인사를 건네느라고 앓을 시간이 없다'는 풍자적인 평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짓곳은(혹은 악의적인) 찬사에는 진실이 담겨 있으니, 초연 후 150년이 지난 지금도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g단조는 우리 귀에 더없이 친근하고 아름답게 들린다.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1840-1893

교향곡 제6번 나단조 Op. 74 '비창(Pathétique)'

언제나 청중에게 가장 사랑받는 작곡가 중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늘 차이콥스키를 따라다녔던 미심쩍은 시선이나 은근한 평가절하는 20세기 후반 이후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절대 값싼 효과에 호소하지 않는, 뽀속까지 정직한 음악가였으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예술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투했던 성실한 음악가였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작품인 교향곡 6번 '비창'을 둘러싼 미스터리란 어쩌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

을 것이다.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제외한다면 '비창' 교향곡만큼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의문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음악 작품도 없을 것이다. 1893년 10월 28일(당시 러시아에서 쓰던 율리우스력으로는 10월 16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초연된 이 교향곡은 작곡가가 초연 후 9일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데다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시작된 논란이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는 만큼 '마지막 유산, 혹은 유언'이라는 성격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차이콥스키가 그런 의도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곡을 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어쩌면 그가 추구했던 관현악 어법의 절정이자 인간이 지닌 '슬픔'이라는 정서를 자유롭게 묘사한 환상곡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교향곡의 내면에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비창' 교향곡은 교향곡 4번 못지않게 대단히 주관적이고 자기고백적이다. 그는 이 교향곡을 가리켜 '표제 교향곡'이라고 하면서도 표제는 '수수께끼로 남겨 사람들이 직접 생각하게 하자'고 했다. 그러나 한 번도 자신을 완전히 숨기지 못했던 차이콥스키는 마치 듣는 이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바라듯 여기저기 자신의 메시지에 도달하는 실마리를 마련해 두었으며, 무엇보다도 작품 전반에 흐르는 비극적인 정서는 듣는 이에게 깊은 상념을 안겨준다.

1악장이 시작되면서 등장하는 느린 서주는 마치 한숨을 쉬는 것 같은 하강 2도 음계로, 바로크 시대부터 슬픔과 탄식, 고통과 죽음을 상징했던 음형이다. 이 모티브는 매우 짧지만 1악장, 나아가 교향곡 전체를 지배하며, 모든 주제 선율에 숨어서 계속 선율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결국에는 멈추게 만든다. 또 1악장 전개부 다음에 금관과 바순이 연주하는 선율은 러시아 정교회의 위령 성무 전례를 인용한 것으로, 이것 역시 작곡가가 심어 놓은 암시일 것이다. 특이하게도 5/4박자의 왈츠 리듬을

도입한 민요풍의 2악장과 급박하게 휘몰아치는 스케르초 형식의 3악장에서도 애수어린 체념과 음울한 그림자는 끊임없이 모습을 드러내며, 격렬하게 마무리되는 행진곡 풍의 3악장(지금도 3악장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쩌면 관습적인 피날레 악장에 대한 패러디인지도 모른다) 다음에는 특이하게도 느리고 비통한 아다지오 라멘토소(Adagio lamentoso) 악장이 전체 교향곡을 마무리한다. 기존 교향곡의 전통을 무시한 이 악장은 그야말로 한 편의 위대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일체의 비속함에 빠지지 않은 이 마지막 악장은 차이콥스키의 내면적 고백이자, 자신의 교향곡 작품에 유기적인 구성이 부족하다는 비평을 언제나 뼈아프게 여겼던 작곡가가 모든 장단점을 하나의 결정체로 승화해서 내놓은 최종선언이기도 하다.

차이콥스키는 초연에서 청중의 반응이 미적지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블라디미르 다비도프에게 '교향곡 6번이 내 모든 작품들 가운데 가장 진실한 곡이라고 생각한다. 그 어떤 곡보다도 이 곡을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주 작은 비평에도 당혹스러우리만치 상처를 받은 했던 예민한 작곡가로서는 놀랄 만한 자신감인데, 그는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드디어 '자신과의 화해'에 도달했던 것일까? 차이콥스키가 정말 콜레라로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면 20세기 중반 이후 급속하게 퍼진 주장처럼 자살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어쩌면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을지도 모르지만, '비창' 교향곡은 한 위대한 작곡가의 고독한 내면과 비극적인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고귀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이준형(음악칼럼니스트)

지휘자 리오넬 브랑기에

Lionel Bringuier, Conductor

피아니스트 조성진

Seong-Jin Cho, Pianist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

Anne-Sophie Mutter, Violinist

서울시립교향악단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CREDIA



CREDIA

지휘자 리오넬 브랑기에

프랑스 출신 지휘자 리오넬 브랑기에에는 깊은 예술성과 음악에 대한 통찰력으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지휘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오케스트라 및 연주자들과 한 무대에 섰으며, 오페라 작품과 음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찬사를 받아왔다.

이번 시즌 그는 뉴질랜드, 한국, 싱가포르, 미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스웨덴 왕립 오페라에서 재초청 받아 새 프로덕션 '리골레토'를 지휘한다. 유자 왕이 협연하는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 공연과 다니엘 뮐러 쇼트, 아라벨라 슈타인바허, 솔 가베타, 안 리치에츠키 등 화려한 솔리스트들이 함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유럽 투어를 이끌 예정이기도 하다.

2019년 봄에는 미국으로 돌아가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댈러스 심포니, 애틀란타 심포니,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 이외에도 오슬로 필하모닉 정규 시즌 프로그램과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그가 지휘한 오케스트라로는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 시카고 심포니, 런던 심포니, 뮌헨 필하모닉 등이 있으며 버나드 랜즈의 '잉글리시 호른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살로넬의 '순례자들', 카이아 사리아호의 '하프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트랜스'를 포함한 여러 곡들의 초연을 지휘했다. 협연한 솔리스트들로는 피아니스트 유자 왕, 벨슨 프레이레, 랑랑, 바이올리니스트 리사 바티아쉬빌리, 르노 카뮈송, 길 샬함, 레이 첸, 첼리스트 고티에 카뮈송 등이 있다.

리오넬 브랑기에에는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두 번의 라벨 오케스트라 모음곡을 발매하였다. 그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슈발리에 기사 훈장을 받았으며 모나코 레이니에 3세 아카데미 드 메달과 니스 시에서 수여하는 황금 메달을 수상했다.

2007년, 리오넬 브랑기에에는 21살의 최연소 나이로 에사 페카 살로넬이 이끄는 LA 필하모닉의 부지휘자로 선발되었다. 그는 또한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지휘한 최연소 지휘자 기록도 가지고 있다. LA 필하모닉을 지휘하며 보여준 뛰어난 역량에 힘입어 2011년 구스타보 두다멜이 이끄는 이 교향악단의 부지휘자로 재임명되었으며, 2011년에는 상주 지휘자가 되었다.



Lionel Bringuier, Conductor

French conductor Lionel Bringuier is one of the most engaging conductors of his generation, heralded for his artistic maturity and insightful programming. He appears frequently with the world's preeminent orchestras, and collaborates with top artists both in concert, in the opera house and on acclaimed recordings.

This season Lionel makes highly anticipated appearances around the world, from New Zealand, to Korea, Singapore and the USA for concert engagements, as well as a reinvitation to the Royal Swedish Opera to conduct a new production of *Rigoletto*. He also returns to the Dresden Staatskapelle to collaborate with Yuja Wang before embarking on an extensive European tour with the Royal Philharmonic Orchestra and renowned soloists Daniel Mueller-Schott, Arabella Steinbacher, Sol Gabetta and Jan Lisiecki with performances in Germany, Austria and the United Kingdom.

Spring 2019 sees Lionel Bringuier return to the United States to conduct the National Symphony Orchestra, as well as the Dallas and Atlanta Symphony Orchestras and the Los Angeles Philharmonic Orchestra. He concludes the main season with visits to Oslo to conduct Ravel's *Daphnis Suite No. 2* before leading the Deutsche Symphonie Orchester in Berlin.

Bringuier has appeared with the Cleveland Orchestra, Chicago Symphony Orchestra, London Symphony Orchestra and Munich Philharmonic, and has conducted numerous premieres, including Rands' *Concerto for English Horn and Orchestra*, Salonen's *Karawane*, and the Swiss premiere of Saariaho's "Trans" for Harp and Orchestra. His discography includes two Ravel compilations on Deutsche Grammophon, among others.

Mr. Bringuier was named a Chevalier de l'Ordre National du Mérite by the French government, and has been lauded with the Médaille d'or à l'unanimité avec les félicitations du jury à l'Académie Prince Rainier III de Monaco and the Médaille d'or from the City of Nice.

In 2007, Bringuier was selected to serve as Assistant Conductor of the Los Angeles Philharmonic. He became the youngest to do so in the orchestra's history, and was reappointed to the position under Gustavo Dudamel and promoted to Resident Conductor in 2011.

피아니스트 조성진

뛰어난 재능과 타고난 음악성으로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가장 각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의 연주는 신중하면서도 시적이고, 확고하지만 부드러운데, 화려한 테크닉과 색채감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탁월한 음악적 균형감을 갖춘 그는 순수하면서도 기품 있는 연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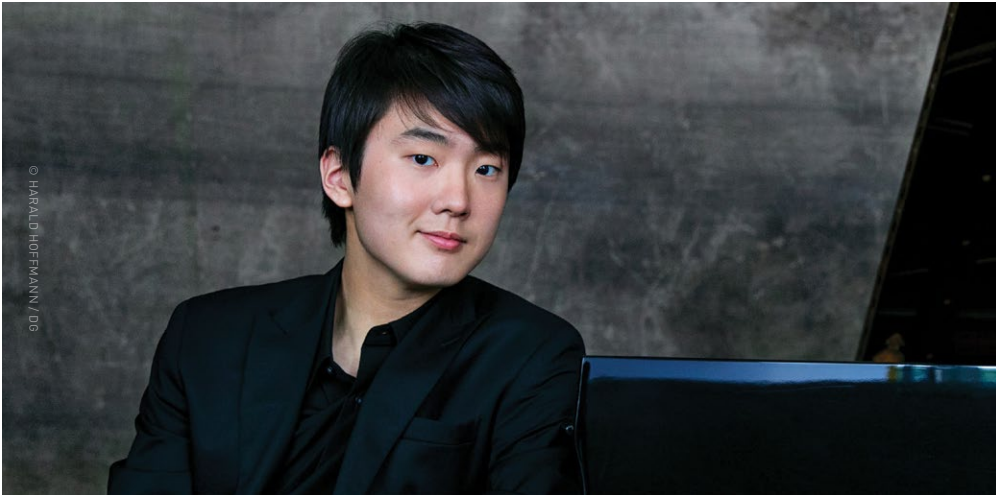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2015년 10월,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2016년 1월, 그는 도이치 그라모폰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아난드레아 노세다 지휘, 런던 심포니 연주의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과 쇼팽 4개의 발라드로 이루어진 첫 정규 앨범이 2016년 11월 발매되었으며, 2017년 11월에는 드뷔시 곡으로 이루어진 솔로 앨범이 출시되었다. 두 음반 모두 전 세계적으로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아닉 네제-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녹음한 모차르트 프로그램 음반이 출시되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공연장에서 리사이틀을 해 오고 있다. 2018/19 시즌, 그는 카네기홀 키보드 비르투오조 시리즈에 재초청 받았는데, 2017년 같은 공연장에서 이미 전석 매진으로 화려한 데뷔를 이룬 바 있다. 또한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허바우 마스터 피아니스트 시리즈 재초청 공연과 베를린 필하모니 체임버홀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 시리즈),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퍼, 로스앤젤레스 월트 디즈니 홀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리사이틀 시리즈), 취리히 톤할레-맥, 스톡홀름 콘서트하우스, 뮌헨 프린츠레겐텐극장, 베르비에 페스티벌, 그슈타드 매뉴힌 페스티벌, 라인가우 페스티벌 등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다음 두 시즌 동안 그는 지아난드레아 노세다 지휘의 런던 심포니, 정명훈 지휘의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한누 린투의 핀란드 라디오 오케스트라,

다비트 아프캄이 이끄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정명훈 지휘의 라스칼라 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 또한 지아난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한 유럽 연합 유스 오케스트라와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허바우, 로열 알버트 홀,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등 유럽 주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였으며, 마렉 야노프스키가 지휘하는 쾰른 방송교향악단과의 독일 및 일본 투어, 이반 피셔 지휘의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안토니오 파파노가 이끄는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아시아 투어에 함께 한다. 조성진은 이외에도 사이먼 래틀, 발레리 게르기예프, 예사-페카 살로넨, 지아난드레아 노세다, 안토니오 파파노, 정명훈,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유리 테미르카노프, 크쥐시토프 울반스키, 파비앵 가벨, 마렉 야노프스키, 바실리 페트렌코, 야쿠프 호루사, 레너드 슬래트킨, 미하일 플레트노프 등 최정상급 지휘자들과 협업해 오고 있다.

2017년 11월, 그는 피아니스트 량량의 대타로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홍콩, 서울 공연의 협연자로 나서며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성공적인 데뷔 공연을 치렀다.

1994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성진은 6세에 피아노를 시작했으며, 11세에 첫 리사이틀을 열었다. 2009년 일본 하마마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우승하였으며, 2011년에는 불과 17세의 나이에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2012년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 입학하여 미셸 베로프를 사사하였고, 2015년 졸업 이후에는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다.



Seong-Jin Cho, Pianist

With an overwhelming talent and innate musicality, Seong-Jin Cho is rapidly embarking on a world-class career and considered one of the most distinctive artists on the international music scene. His thoughtful and poetic, assertive and tender, virtuosic and colorful playing can combine panache with purity and is driven by an impressive natural sense of balance.

Seong-Jin Cho was brought to the world's attention in Autumn 2015 when he won the First Prize at the Chopin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Warsaw. In January 2016, Seong-Jin signed an exclusive contract with Deutsche Grammophon. The first recording was released in November 2016 featuring Chopin's First Concerto with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and Gianandrea Noseda and the Four Ballades. A solo Debussy was then released in November 2017. Both albums won impressive critical acclaim worldwide. In 2018 he recorded a Mozart program with sonatas and the D minor concerto with the Chamber Orchestra of Europe and Yannick-Nézet-Seguin.

An active recitalist, he performs in many of the world's most prestigious concert halls. In the 2018/19 season, he will return to the main stage of Carnegie Hall as part of the Keyboard Virtuoso series, Amsterdam's Concertgebouw in the Master Pianists series and will play recitals at the Berlin Philharmonie Kammermusiksaal (Berliner Philharmonic concert series), Frankfurt's Alte Oper, Los Angeles' Walt Disney Hall, Zurich's Tonhalle-Maag, Stockholm's Konserthuset, Munich's Prinzregententheater, Verbier Festival, Gstaad Menuhin Festival, Rheingau Festival.

During that season, he will play with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and Gianandrea Noseda, at the Barbican Centre, Radio France Philharmonic Orchestra

and Myung-Whun Chung at the Paris Philharmonie, Finnish Radio Orchestra and Hannu Lintu, Philadelphia Orchestra and David Afkham, Orchestra della Scala with Myung-Whun Chung. He will also tour with the European Union Youth Orchestra and Gianandrea Noseda in venues like Amsterdam's Concertgebouw, Royal Albert Hall, Berlin Konzerthaus, the WDR Sinfonieorchester and Marek Janowski in Germany, the Budapest Festival Orchestra and Ivan Fischer and the Santa Cecilia Orchestra with Antonio Pappano in Asia.

Seong-Jin collaborates with conductors at the highest level such as Sir Simon Rattle, Valery Gergiev, Esa-Pekka Salonen, Gianandrea Noseda, Antonio Pappano, Myung-Whun Chung, Vladimir Ashkenazy, Yuri Temirkanov, Krzysztof Urbanski, Fabien Gabel, Marek Janowski, Vassily Petrenko, Jakub Hrusa, Leonard Slatkin or Mikhail Pletnev.

In November 2017, Seong-Jin stepped in for Lang Lang with the Berlin Philharmonic Orchestra for concerts in Berlin, Frankfurt, Hong-Kong and Seoul.

Born in 1994 in Seoul, Seong-Jin Cho started learning the piano at 6 and gave his first public recital at age 11. In 2009, he became the youngest-ever winner of Japan's Hamamatsu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2011, he won Third prize at the Tchaikovsky Competition in Moscow at the age of 17. In 2012, he moved to Paris to study with Michel Béroff at the Paris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where he graduated in 2015. He is now based in Berlin.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

안네 소피 무터는 경이로운 음악가이자 비르투오소로 40년 넘게 세계 주요 공연장을 주무대로 활동하며, 클래식 음악계에서 독주자이자 멘토, 그리고 선구자로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겨왔다.

1976년 루체른 페스티벌에서 데뷔 무대를 가진 후 이듬해 1977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의 베를린 필하모닉과 협연하였으며, 이후 보스턴 심포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뉴욕 필하모닉, 시카고 심포니, 파리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같은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 무대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작곡가 및 음악가들과도 꾸준히 협업해오고 있음은 물론이다.

안네 소피 무터는 음악의 미래를 위해서도 헌신해왔는데, 진은숙, 세바스찬 커리어, 앙리 뒤티외, 소피아 구바이둘리나, 비톨드 루토슬라프스키, 노버트 모레,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 앙드레 프레빈, 볼프강 림, 존 윌리엄스 등과 같은 현대음악 작곡가들이 그녀에게 헌정한 26개의 곡을 세계 초연하였다.

2018/19 시즌 무터는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 85세 생일을 맞아 신포니아 바르소비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펜데레츠키의 곡을 연주하는 중국 6개 도시 투어를 가졌으며, 11월에는 도이치 그라모폰 12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만프레드 호네크 지휘로 베를린 슈타츠크펠레와 존 윌리엄스의 바이올린과 현, 하프를 위한 곡 'Markings'를 독일에서 초연한다. 그리고 에딘버러와 글래스고에서 펜데레츠키의 지휘로 스코틀랜드 국립 오케스트라와 펜데레츠키 '메타모르포젠'을 연주한다.

2019년 3월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5개 도시 투어를 하는데, 세바스찬 커리어의 '피아노 트리오'를 3월 12일 카네기홀에서 세계 초연하며, 5월과 6월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스와 미국에서 빈 필하모닉과 베를린 필하모닉의 단원으로 구성된 비엔나 - 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들을 연주한다.

재능 있는 음악가들을 지원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는 무터는 1997년 가을 '안네 소피 무터와 친구들 재단'을, 2008년에는 '안네 소피 무터 재단'을 설립하였다. 2011년부터 무터 재단의 장학생들로 이루어진 앙상블 '무터 비르투오지'와 함께 정기적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으며, 무터 비르투오지와 피아니스트 다닐 트리포노프가 참여한 비발디의 '사계', 슈베르트 피아노 오중주 '송어'를 녹음하였다.

4번의 그래미상 수상자이기도 한 무터는 2018년 8월 펜데레츠키의 곡으로만 이루어진 '펜데레츠키 헌정 (Hommage à Penderecki)'을 발매하였다. 이 앨범은 안네 소피 무터가 펜데레츠키의 85세 생일을 기념하여 미국과 유럽에서 가졌던 리사이틀, 런던 필하모닉 및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협연, 카네기홀에서의 연주를 포함한 모든 활동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안네 소피 무터는 문화 예술의 대한 공로로 폴란드 골드 메달을 비롯하여 바이에른 공로 훈장, 루마니아 문화 훈장,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코망데르 훈장과 젊은 연주자들의 대한 교육과 지원을 인정받아 세계 경제 포럼이 수여하는 크리스탈 상을 받았으며, 에른스트 폰 지멘스 상, 독일 십자 훈장을 포함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Anne-Sophie Mutter, Violinist

Anne-Sophie Mutter is a musical phenomenon and virtuoso who, for more than 40 years, has been a fixture in all the world's major concert halls, making her mark in classical music as a soloist, mentor and visionary.

Since her recital debut at the 1976 Lucerne Festival and solo debut with the Berliner Philharmoniker under Herbert von Karajan at the 1977 Salzburg Whitsun Festival, Ms. Mutter has frequently performed with the world's greatest orchestras.

Ms. Mutter is as equally committed to the great canonical works as to the future of music, and has given the world premieres of 26 works, many written for her, by composers including Unsuk Chin, Sebastian Currier, Henri Dutilleux, Sofia Gubaidulina, Witold Lutoslawski, Norbert Moret, Krzysztof Penderecki, Sir André Previn, Wolfgang Rihm and John Williams.

Ms. Mutter's 2018/2019 season includes a six-city tour of China in October 2018 with the Sinfonia Varsovia featuring works by Krzysztof Penderecki on the occasion of his 85th birthday. In November 2018, Ms. Mutter returns to the Staatskapelle Berlin with the German premiere of Williams' *Markings for Solo Violin, Strings, and Harp* for the Deutsche Grammophon's 120th Anniversary Jubilee Concert conducted by Manfred Honeck, followed by appearances with the Royal Scottish National Orchestra in Edinburgh and Glasgow performing Penderecki's *"Metamorphosen"* with the conductor on the podium.

In March 2019, Ms. Mutter returns to North America for a five-city tour of the U.S. and Canada featuring the world premiere of Currier's *Piano Trio* at Carnegie Hall on March 12. Ms. Mutter then embarks on an extensive tour performing Mozart's *Violin Concertos* with the Chamber Orchestra Vienna-Berlin—consisting

of members of the Berliner Philharmoniker and the Wiener Philharmoniker—in May and June 2019 with performances throughout Germany, Austria, Spain, Greece, and the U.S.

Dedicated to fostering the careers of emerging musicians, Ms. Mutter founded the "Association of Friends of the Anne-Sophie Mutter Foundation e.V." in 1997, to which the Anne-Sophie Mutter Foundation was added in 2008. Since 2011, she has regularly shared the spotlight on stage with the foundation's exclusive ensemble of fellows, *The Mutter Virtuosi*. She has featured them in recordings, including Vivaldi's *Four Seasons*, and Schubert's "Trout" Quintet with Daniil Trifonov.

The four-time Grammy® Award winner released an all-Penderecki album in August 2018 titled *Hommage à Penderecki*, which included the world premiere recording of the composer's *Sonata No. 2 for Violin and Piano*. The album marks the culmination of Ms. Mutter's season-wide celebration of Penderecki's 85th birthday in 2018, which has included recitals across U.S. and Europe, performed with the London Philharmonic, Rundfunk-Sinfonieorchester Berlin, and at Carnegie Hall.

Ms. Mutter has received international awards and honors, including the Polish Gold Medal for Merit to Culture, the Bavarian State Foundation Culture Prize, the Romanian Order of Cultural Merit in the rank of Grand Officer, the insignia of a Commander of the French Order of Arts and Literature, the Crystal Award by the World Economic Forum for her services to music education and young artists, the Ernst von Siemens Music Prize, and the German Grand Order of Merit, among numerous others.

서울시립교향악단

73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시향은 2005년 재단법인으로 독립 이후,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전 예술감독의 리더십 아래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성장했다. 수석객원지휘자 티에리 피셔와 마르쿠스 슈텐츠, 세계적인 명성의 객원지휘자, 협연자가 함께하는 정기연주회는 탁월한 음악적 성과와 프로그래밍으로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향은 2007년 태국 및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유엔의 날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2010년 이탈리아, 독일, 체코, 러시아 등 유럽 4개국 9개 도시 투어, 2011년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등 유럽 페스티벌 투어, 2012년 로스앤젤레스 등 북미 투어에서 기립박수와 호평을 받았다. 2013년 4월에는 서울과 베이징의 자매도시 2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의 국가대극원 무대에 올랐으며, 2014년 8월에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등 클래식의 본고장 유럽 무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영국 BBC 프롬스 공연은 현지 유력 일간지로부터 최고 등급의 평가와 함께 '깊은 감동을 주는 매우 품격 있는 연주'라며 찬사를 받았다. 또한 2015년에는 중국 국가대극원과 일본 산토리홀 초청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아시아의 주요 오케스트라로서 입지를 다졌다.

한편, 서울시향은 전문 공연장에서의 콘서트 외에도 다양한 공익 공연을 펼치며 서울시민과 호흡하고 있다. 병원, 교도소, 구민회관 등을 방문하는 '우리동네 음악회', 한강변에서 펼치는 '강변음악회', '광복절 기념 음악회' 등 대형 야외공연은 서울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그 밖에도 공연관람 고객을 위한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차세대 지휘자 양성을 위한 '지휘 마스터클래스', 작곡 전공생을 위한 '작곡 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는 물론 전문 연주자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향은 2011년 아시아 교향악단으로는 최초로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과 5년 동안 매년 2장의 음반을 출시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2015년 '말리 교향곡 5번'을 발매하는 등 지금까지 총 9장의 음반을 출시하였다. 특히 '진은숙 3개의 협주곡' 음반은 세계적 권위의 음반상인 국제클래식음악상(ICMA) '현대음악' 부문과 BBC 뮤직 매거진 '프리미어' 부문을 수상하였다.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For the past 73 years, the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SPO)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enriching the cultural lives of Korea's citizens. In 2005, under the leadership of the former music director Maestro Myung-Whun Chung, the orchestra was reborn, setting a new standard for orchestral music in Korea. With Thierry Fischer(Principal Guest Conductor), Markus Stenz(Conductor-in-Residence) and the world-renowned guest conductors and soloists, the SPO continues to take the initiative in shaping the Korean classical music scene.

The SPO has extended its scope to an international scale starting in 2007 with Thailand and the New York-based U.N. Headquarters for the 62nd United Nations Day Concert. In 2010, the orchestra embarked on its first overseas tour to nine cities in Italy, Germany, Czech Republic and Russia. This followed the orchestra's European festival tour in 2011 which included the world-famous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In 2012, the orchestra won standing ovations and wide acclaim for its North American tour, including their performance at the world renowned Walt Disney Concert Hall in Los Angeles. In 2013, SPO performed a meaningful concert at the National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in Beijing to celebrate the 20th Anniversary of Seoul-Beijing sister cities relationship. In August 2014, the SPO toured to the Turku Music Festival, the Grafenegg Festival, the Merano Music Festival, and to the BBC Proms in Europe where the orchestra received rave reviews from critics and audiences alike. The influential UK newspaper, The Daily Telegraph, gave the orchestra's performance at the BBC Proms its highest rating of five stars, describing it as "beautifully paced and deeply moving."

Meanwhile, apart from traditional concert hall venues, the SPO performs a wide range of public concerts and

is deeply involved in the everyday lives of Seoul citizens. Large-scale outdoor concerts such as the Neighborhood Concerts in hospitals, prisons, local community centers and other diverse places, the Riverside Concert at the side of the Hangang River, and Korea's National Liberation Day Concert are all greatly loved by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in the bustling metropolis.

Furthermore, SPO also provides Pre-concert Lecture for adult audiences, Conducting Masterclasses for young conductors, and Composition Masterclasses for the future composers. They are all part of the orchestra's vision to expand its future audience base as well as to develop and nurture young artists on a long-term basis. SPO also became the first Asian orchestra to sign an exclusive worldwide contract with the Deutsche Grammophon label for two CD releases annually in a total span of five years. A total of nine albums have been released up to date including Unsuk Chin's 3 Concertos and Mahler's Symphony No. 9 which were released in 2014 and Mahler's Symphony No. 5 in 2015. The Unsuk Chin's 3 Concertos album in particular was honored by two of the world's most prestigious awards in classical music: International Classical Music Awards(ICMA) for best contemporary music recording and BBC Music Magazine Awards for winning the Premiere Category.

서울시립교향악단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대표이사 President & Chief Executive Officer

강은경 Annette Eunkyung Kang

수석객원지휘자 Principal Guest Conductor

티에리 피셔 Thierry Fischer

마르쿠스 슈텐츠 Markus Stenz

공연기획자문역 Artistic Advisor

볼프강 핑크 Dr. Wolfgang Fink

부악장 Associate Concert Master

웨인 린 Wayne Yi-Wen Lin

신아라 A Rah Shin

제1바이올린 1st Violin

문주영 Ju Yeong Moon •

한지연 Jiyun Han •

엄성용 Sungyong Ueom ◦

주연경 Yeon Kyung Joo ◦

보이텍 짐보브스키 Wojciech Maciej Dziembowski ◦

하상미 Sangmee Huh ◦

고현수 Hyunsu Ko

김민정 Minjung Kim

김민용 Minyong Kim

김혜연 Hye Yeon Kim

두루미 Roomee Du

송혜림 Hye Lim Song

양유진 Eugene Yang

우혜경 HyeKyung Woo

유미나 Mina Yoo

주연주 Yeonju Joo

최해성 Hae Sung Choe

제2바이올린 2nd Violin

임가진 Kajin Lim •

김택우 Duekwoo Kim •

김수영 Sooyoung Kim ◦

정지혜 Ji-Hye Chung ◦

곽승란 Saung-Ran Kwak

김미경 Mi-Kyung Kim

김미연 Mi-Youn Kim

김영아 Yeong-A Kim

김용화 Yong-Hwa Kim

김인학 In-Hak Kim

김지원 Ji-Won Kim

엄자경 Cha-Kyung Eom

이주은 Joo-Eun Lee

이혜미 Hyemi Lee

조은주 Eun Ju Cho

진영규 Young-Kyu Jin

최고은 Go-Eun Choi

비올라 Viola

강윤지 Yoonji Kang •

구이삭 Isaac Gu

김선영 Sun Young Kim

김성은 Sungeun Kim

김예진 Yaejin Kim

나유나 Yuna Ra

대일 김 Dale Kim

성민경 Min-Kyung Sung

안톤 강 Anton Kan

이선주 Sun Joo Lee

이형은 Hyungeun Lee

임요섭 Joseph YoSub Lim

파벨 키르스 Pavel Kirs

홍지혜 Ji Hae Hong

첼로 Cello

심준호 Joon-Ho Shim •

김민경 Min Kyung Kim

김소연 Soyun Kim

김원정 Wanjung Kim

박무일 Mu Il Park

박은주 Eunju Park

반현정 Hyun Jung Ban

신애경 AeKyung Shin

이혜재 Hye-Jae Lee

장소희 Sohee Chang

차은미 Eun-Mi Cha

최운선 Woon-Sun Choi

더블베이스 Doublebass

안동혁 Dong-Hyuck Ahn •

이영수 Young-Soo Lee ◦

강인한 Inhan Kang

김진철 Jin-Chul Kim

이충석 Choong-Seok Lee

장승호 Seung-Ho Chang

정두웅 Doo Woong Chung

조정민 Jung-Min Cho

한민아 Min-A Han

플루트 Flute

박지은 Gloria JeeEun Park •

김세현 Se Hyun Kim ◦
송연화 Yun-Hwa Song
장선아 Seon-Ah Jang

오보에 Oboe

이미성 Mi-Sung Lee •
이연주 Youn Joo Lee ◦
고관수 Kwansoo Ko
류경균 Gyung Gyun Ryu

클라리넷 Clarinet

임상우 Sang-Woo Lim •
이창희 Chang-Hee Lee
정은원 Eun-Won Chung

바순 Bassoon

곽정선 Jung-Sun Kwak •
장명규 Myoung Gyu Jang ◦
정수은 Soo-Eun Jeong
최종선 Jong-Sun Choi

호른 Horn

미샤 에마노브스키 Michal Emanovsky ◦
권영진 Youngjin Kwon
김병훈 Byeonghun Kim
배설아 Seul A Bae
이세르게이 Sergey Lee
최윤 Yoon Choi

트럼펫 Trumpet

알렉상드르 바티 Alexandre Baty •
제프리 홀브룩 Jeffrey David Holbrook ◦
남관모 Kwanmo Nam
닐스 하이도우 Niels E. Heidø

트롬본 Trombone

제이슨 크리미 Jason Matthew Crimi ◦
노영남 Youngnam Noh
김태훈(베이스 트롬본) Taehun Kim (Bass Trombone)

튜바 Tuba

지승렬 Sung Youl Gi

타악기 Percussion

에드워드 최 Edward Choi •
스콧 버다인 Scott Verduin ◦
김문홍 Mun Hong Kim

김미연 Miyoun Kim

하프 Harp

박라나 Rana Park

악보 Librarian

김진근 Kevin Jin-Keun Kim
김보람 Boram Kim

무대감독 Stage Manager

김양수 Yang Soo Kim
김규호 Kyuho Kim

경영본부장 Managing Director

홍준식 Joonsik Hong

공연사업팀 Artistic Administration

백지혜 Ji-Hye Baik 박찬연 Chanyeon Park
차민호 Minho Cha 곽범석 Joseph B. S. Kwak
백수현 Soohyun Ashley Paik 최유진 Youjin Choi
윤수연 Sooyeon Yoon 한지현 Jihyun Hailey Han

홍보마케팅팀 PR & Marketing

양창섭 Changseop Yang 최준혁 Junhyuk Choi
황호연 Hwoyeon Hwang 노민언 Minun Roh
강성현 Sunghyun Kang 장보라 Bora Chang
장지희 Jihee Jang 한유진 Yoojin Han

경영지원팀 Administration

김유나 Yonah Kim 강성욱 Sunguk Kang
조일용 Il Yong Cho 윤경환 Kyunghwan Yoon
이채윤 Chaeyoon Lee 마진아 Jinah Ma
지민희 Minhee Ji 차지현 Jihyun Cha
김지은 Jieun Kim 정민영 Minyoung Jung

기획협력팀 Planning & Cooperation

송한선 Hansun Song 김진영 Jinyoung Kim
백난아 Nana Baek 노대민 Daimin Noh

감사역 Auditor

이철희 Cheolhee Lee

- 수석 Principal
- 부수석 Associate Principal
- 차석 Assistant Principal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노란 딱지,
도이치 그라모폰 갈라 콘서트에서 만나는 조성진**

| 이지영 (음악 칼럼니스트)

CREEDIA

노란 레이블에 담긴 다섯 가지 역사적 키워드

| 노승림 (음악 칼럼니스트)



© HARALD HOFFMANN / DG

© TINA TAHR / C/O SHOTVIEW PHOTOGRAPHERS / DG

© SIMON PAULY

YEARS OF

DEUTSCHE GRAMMOPHON ANNIVERSARY CONCERT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노란 딱지, 도이치 그라모폰 갈라 콘서트에서 만나는 조성진

현존 음반사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Deutsche Grammophon, 이하 DG)은 세계적인 거장들의 카탈로그를 보유한 최대의 레이블이다. 올해로 120년이 된 음반사를 축하하는 행사의 중심에 조성진이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은 우리와는 동떨어진 존재였다. 이번에 이 레이블의 창립 120주년을 맞이해 10월과 11월, 중국과 베를린에서 다니엘 바렌보임, 랑랑, 베를린 슈타츠헤펠레 등이 갈라 콘서트를 갖고, 창립일인 12월 6일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기념 무대에 선다. 7일에는 도이치 그라모폰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의 연주가 기다린다. 이제는 사람들이 음반을 듣지 않는다고 하지만 음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아티스트에게 중요한 명함이자 기록이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만났다.

'8년 만에 서울시향과 협연해 기쁘다 - 조성진'

조성진의 2018년 달력은 매달 빼곡하고 면면이 화려하다. 1월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리사이틀을 가졌고, 미국을 거쳐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3월 이탈리아 라 스칼라에서 공연을 가졌다. 4월에는 기돈 크레머 & 크레메라타 발티카와 뮌헨, 레겐스부르크에서 쇼팽 협주곡 2개와 트리오를 연주했고,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와 함께 빈, 런던, 파리에서 가곡 리사이틀을 가졌다. 5월에는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에서 연주했고 6월에는 프랑크푸르트 라디오와 함께 일본 투어를 했으며 7월에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수장인 야닉 네제 세갱과 모차르트 앨범을 녹음했다. 이후에도 싱가포르, 디트로이트, 베르비에 페스티벌, 라인가우 페스티벌, 그리고 베를린, 암스테르담, 바르샤바, 이탈리아까지 크고 작은 무대가 계속 이어졌다.

특히 기돈 크레머, 마티아스 괴르네와의 무대는 물론이

고 야닉 네제 세갱과의 녹음 영상과 25주년 생일을 맞은 베르비에 페스티벌에서 21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들과 선보인 찬란한 무대와 BBC 프롬스 데뷔 무대는 영상으로 널리 소개되기도 했다.

공연마다 굵직한 무대인데 스케줄 자체도 많으니 체력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어요.

건강한 편이라서 잘 안 아팠는데, 연초에 몸살이 났어요. 다음 연주 때문에 공항에 가야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연주를 줄여야겠다고 느꼈어요. 이제 잘 쉬는 요령이 생겨서 이동할 땐 무조건 잘 자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전엔 진한 커피도 끊었고요, 콜라도 안 마시고 초콜릿도 잘 안 먹고, 카페인도 많이 줄였어요. 술은 좋아하기도 하고 쉬는 데 약간 도움이 되지만 너무 의존해도 안 좋은 것 같아요.

한동안 많은 애호가들의 SNS에 베르비에 페스티벌 영상이 포스팅됐어요. 키신, 플레트네프, 슈프, 유자 왕, 트리포노프, 바바얀, 코츠킨과 함께 어울려서 네 대의 피아노로 <윌리엄 텔> 서곡을 연주했죠. 연주자도 즐거웠겠지만 보는 이들도 무척 즐거웠습니다.

연주하는 순간보다는 리허설 때가 너무 재밌었는데, 특히 키신한테 폭 빠졌어요. 그 사람의 음악과, 태도, 행동 하나하나가 진지한데다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 게, 바로 옆에서 보니까 확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라두 루푸, 크리스티안 치메르만, 에드빈 피셔 같은 피아니스트들을 좋아하는데, 솔직히 키신은 제일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는 아니었지만 그때 옆에서 보고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끝까지 노력하는 점도 존경스럽고, 똑똑해요. 그 무대는 쇼 같은 프로그램인데도 리허설 때마저도 정말 꼼꼼했거든요. 그 정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모든 무대를 진실하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 와중에 지휘자 야닉 네제 세갱과 7월에 녹음한 새 앨범이 11월에 발매될 예정이네요. 어떤 곡이 수록되나요?

7월 10일에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을 녹음했고, 19일에 소나타 K.281과 K.332를 녹음했어요.

소나타는 도이치 그라모폰과 첫 앨범을 녹음했던 프리드리히 에버트 할레에서 녹음했네요.

쇼팽과 드뷔시를 녹음하면서 스튜디오 레코딩에 더 적응한 것 같아요. 지난 앨범보다는 조금 더 만족스럽지 않나 생각해요.

지휘자 야닉과의 호흡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피아노 주자로 나서서 성악 앨범 녹음도 자주 했고 오페라 지휘에 탁월한 사람인데, 그의 모차르트는 얼마나 섬세할까요.

야닉의 첫 번째 특징은 꼼꼼하다는 점이에요. 야닉도 피아노를 잘 쳤기 때문에 협주곡 할 땐 그 점이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협주곡이니 오케스트라는 단순히 반주라 여기기 십상인데 그렇지 않고 역할을 최대한 잘 살려 내거든요. 협주곡 오프닝 부분은 먼저 들어봤는데 제가 들어본 오프닝 중 최고였어요. 트럼펫만 시대악기였고 나머지 악기는 현대악기로 썼는데, 피치를 441로 약간 낮춰 조율하니까 음색이 확 바뀌었어요. 음악은 활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엄청난 반면 더 섬세해진 것 같아요. 제가 100% 만족할 수 있다고는 말 못 하지만 즐겁게 녹음할 수 있었어요.

12월 6일에는 같은 곡을 서울시향과 연주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모차르트를 같이 해본 적이 있죠?

2011년 1월에 정명훈 선생님 지휘로 서울시향과 똑같은 곡을 협연했어요. 열 살 때부터 해왔던 곡이라 익숙한 작품이지만 거의 8년 만에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영광이네요.

앞으로 더 하고 싶은 협주곡 레퍼토리는 뭐가 있을까요?

브람스 협주곡이요. 베토벤 협주곡 전곡 연주 계획도 있어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 되는 2020년에 독일에서 3일 동안 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2번 협주곡 빼고는 서울시향과 4번과 5번, 라 스칼라와 3번을 연주했고, 1번은 폴란드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 외에 버르토크 협주곡 중에서 2번, 3번도 나중에 해보고 싶어요.

현존하는 작곡가에 대한 관심도 궁금해요. 동시대 작곡가의 작품을 녹음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현대음악에도 관심이 많아요. 조지 벤저민, 진은숙 선생님 작품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진은숙 선생님 곡은 내년에 에튀드 한 곡 정도는 연주할 것 같아요. 현대음악은 좋긴 하지만 작품을 잘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 초연 의뢰가 들어온다면 기쁘게 할 의향이 있어요.

새로운 곡을 받으면 빨리 익히는 편인가요?

제가 초견이 뛰어나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곡을 빨리 외우는 편이에요.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익히는 스타일이거든요. 누구보다도 빠르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느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특별히 다양한 실내악 무대가 많았는데, 앞으로 리사이틀을 구성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고 싶은가요?

올해까지는 쇼팽을 주로 하는 반면 내년에는 여섯 번 정도만 연주해요. 카네기홀 공연에서도, 베를린 필하모닉 챔버홀 리사이틀에도 쇼팽은 없어요. 대신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 드뷔시의 '영상'과 '프렐류드' 중 몇 개씩, 그리고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을 연결해보려고요. 사실 리스트의 소나타도 생각했는데, 드뷔시나 무소르스키 모두 상상력이 필수인 곡이라고 생각해서 더 낫겠다 싶어요. 슈베르트 방랑자도 소나타 형식이긴 하지만 환상곡이니, 생각도 자유롭고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하는 곡들이라 같이 묶어봤어요.

앞으로 어떤 작품을 녹음하게 될까 궁금해지네요. 랑랑이나 플레트네프처럼 카네기홀 실황을 앨범으로 발매해도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도이치 그라모폰과 작업하는 것이 즐겁고 기뻐요. 그런데 레코딩은 하고 나면 살이 빠질 정도로 힘든 작업이긴 해요. 왠지 스튜디오 레코딩이 실황 녹음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요. 라이브는 무척 떨릴 것 같거든요.

노란 레이블에 담긴 다섯 가지 역사적 키워드

1. 도이치 그라모폰은 독일 회사인가?

‘도이치 그라모폰(Deutsche Grammophon, 이하 DG)’이라는 명칭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독일 전축’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국가색이 강렬한 회사가 있을 수 있을까? 지난 9월 3일 서울에 방문한 DG 사장 클레멘스 트라우트만은 “DG는 처음부터 국제적인 레이블”이었다며 자사가 지난 글로벌한 정체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 회사의 태동은 독일과 무관했다. 창립자 프레드 가이스버그는 워싱턴 DC에서 성장한 미국인이었고 원반형 디스크를 발명한 에밀 베를리너 또한 독일 태생의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민자였다. 1899년 베를리너는 필라델피아에 최초의 레코딩 스튜디오를 차리고 25세의 가이스버그를 ‘그라모폰과 타자기 회사’ 런던 지부 책임자로 앉혔다. 이 회사는 프랜시스 바로라는 화가가 그린 개와 축음기 그림을 사들여 로고로 정하고 회사 이름도 ‘His Master’s Voice(그의 주인의 목소리)’로 바꾸었다. 이후 가이스버그와 함께 유럽으로 건너간 베를리너의 조카가 하노버로 가서 도이치 그라모폰 게젤샤프트(DGG)를 설립한 것이 바로 하노버 본사이다(2011년 DG 본사는 베를린으로 옮겨왔다).

2. 엘자 실러: 그라모폰을 황금기로 이끈 여장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DG는 자신들의 국제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이는 독일이 패망하면서 ‘도이치’란 자사의 이름이 마케팅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의 보조금과 미국 CIA에서 전달한 비밀 자금의 수혜자 중 하나였던 DG는 음악 분야에서 문화 재건 과업을 떠안았지만 예술가들은 ‘도이치’라는 이름을 앞세운 음반사와 일하기 꺼려했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사죄와 위기 극복을 위해 DG는 엘자 실러라는 유대인 여성 프로듀서를 영입했다. 헝가리에서 태어나 테레지엔슈타트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감금됐던 그녀는 간발의 차이로 아우슈비츠행을 피한 행운아였고, 20세기 초반 음악계에서 보기 드문 여성 지휘

자로 활동했다. 종전 뒤 미국 라디오 방송국 RIAS 음악 감독으로 일하던 그녀는 예술가를 알아보는 빼어난 안목의 소유자였고 이런 능력이 지멘스의 눈에 들어왔다. 실러와 DG의 관계는 초반에 그리 원활하지 못했다. 이는 유대인으로서 독일 기업에 대한 적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남성 위주의 결정권과 여성들의 노동 착취(당시 음반 재킷은 부인들의 바느질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등 DG사의 거부장적 문화에 반기를 들었고 이 때문에 당시 DG가 역동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LP 산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인맥, 그리고 빼어난 섭외력을 총동원해 뛰어난 음악가들을 유대인이든 독일인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영입했다. 페렌크 프리차이,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 로린 마젤, 아마테우스 4중주단 등 셀 수 없이 많은 스타 음악가들이 DG를 대표했다.

독일 패망과 더불어 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DG는 유대인 여성 실러의 도움으로 10년 만에 옛 명성을 회복했다. 그녀는 마르타 아르헤리치와의 계약을 마지막으로 음악 무대에서 퇴장했다.

3. 노란 툴립의 비밀

DG에 영입될 때 실러가 감수해야 했던 것은 DG의 노란 로고였다. 당시 음반사는 개편을 통해 각 장르별로 상징 컬러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폴리도어 팝은 빨간색, 고음악 전문 레이블은 아르히프는 은색, 그리고 DG는 노란색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은 이 ‘노란 딱지’가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퀄리티의 상징이 되었지만 유대인인 실러에게는 나치 시절 달고 다녔던 유대인의 노란별을 연상케 했을 것이다. 이 노란색 도입은 사실 DG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반발이 다소 있었다. 빨간색이나 은색에 비해 품위가 없고 암전해서 구매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줄기차게 이 색깔을 고수한 인물은 지멘스에서 DG 디자이너로 이적한 한스 도미츨라프였다. 그는 “노란색은 가톨릭의 상징이라 보수적인 소비자 층에 친근하며 검정 글씨가 더 선명하게 부각된다”고 주장하며 툴립 로고까지 직접 디자인했다.

LP 시절 이 툴립은 사실 하이퀄리티 테크놀로지의 비밀

스런 상징이기도 했다. 디스크 안쪽에 둥그렇게 띠를 이룬 톨립 로고는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효과를 검증하는 장치였다. 전축의 턴테이블이 적절한 속도로 회전할 경우, 이 톨립 마크들은 회전 중에 몽개지지 않고 오히려 선명하게 부각됐다.

4. 스타 마케팅

EMI, 데카 등 당시 접전을 벌이던 여타 메이저 음반사들과 차별되는 DG의 전략은 '스타 마케팅'이었다. 음악 그 자체의 기록에 비중을 둔 타사와 달리 DG는 그 음악을 '누가' 연주하느냐에 방점을 찍었다. 여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은 물론 엘자 실러였다. 무수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DG에 영입됐지만, 그중에서도 최대의 스타는 자타가 공인하듯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었다. 유대인 수용소 출신의 엘자 실러가 나치 부역자로 비난 받던 카라얀과 찰떡궁합을 이룬 것은 누가 봐도 의외의 일이었다. 다른 음악가들이 기술에 다소 무지했던 반면 카라얀은 음악과 기술 양쪽 모두에 명민한 통찰력이 있었다. 이는 발명가 지망생이었던 형 볼프강 폰 카라얀의 영향이 컸다. EMI와 이미 녹음 작업을 했고 데카로부터 솔한 러브콜을 받은 그였지만, 지멘스가 시연한 신기술에 받은 깊은 인상과 엘자 실러에 대한 신뢰로 인해 카라얀은 최종적으로 DG의 품에 안겼다. 카라얀은 DG에서 300여 종에 달하는 음반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DG를 세계 최고의 레이블로 승격시켰다. 더불어 그가 거느리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베를린시 정부의 예산에 의해 운영되던 악단임에도 어느덧 DG 전속 악단으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렬해졌다. DG는 아예 베를린 필과 활동이 가능한 지휘자들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쳤고 그렇게 오이겐 요훤, 카를 뵘 등이 영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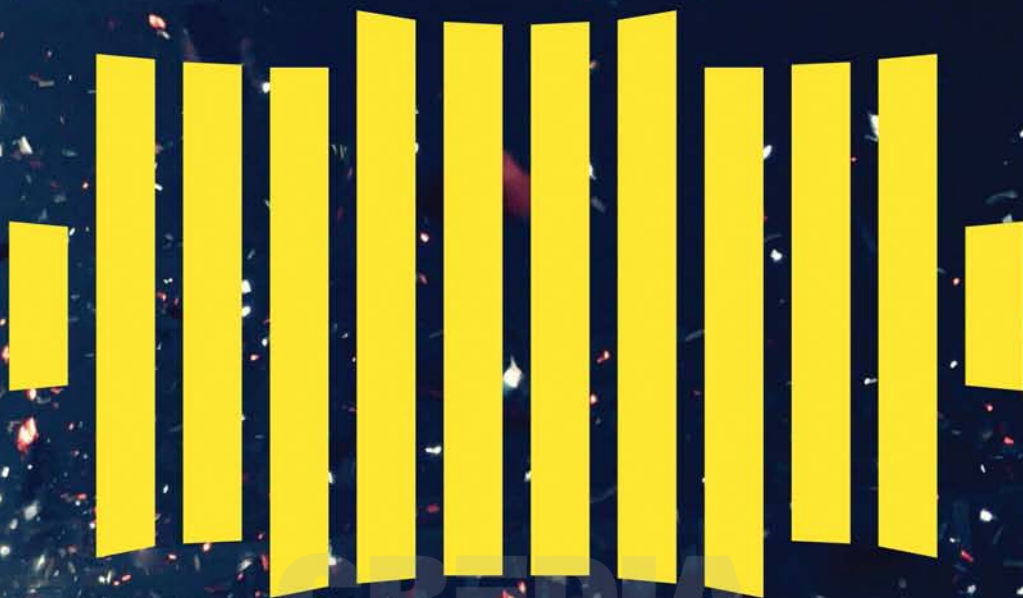
5. 멈추지 않는 진화의 동력

2015년 클레멘스 트라우트만 체제가 시작된 후 DG는 고전적인 음반 회사의 껍질을 벗고 신기술의 힘을 빈 신세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엘 시스템의 히어로 구스타보 두다멜을 비롯해 안드라스 넬손스, 야닉 네제 세갱 등 신세대 지휘자들을 영입하여 여전히 지휘자 강국으로서의 타이틀을 놓지 않고 있는 반면 신세대 아티

스트들의 영입에도 역동적이다. 25세의 조성진이 DG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도 젊은 트렌드에 민감한 DG사의 전략 덕분이다. 1세기 이상의 역사를 지닌 회사라는 이미지가 무색하게 20~30대가 선호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롯한 온라인 사업에서도 남다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클래식 음반사 가운데 최초로 웹사이트를 구축했던 DG는 현재 수많은 동곡의 연주 중 최상의 연주를 엄선해 선보인다는 '큐레이션 시대'를 주도한다. 물론, 그 최상의 연주에는 반드시 노란 딱지가 붙어 있을 거란 자부심과 함께.

21세기 DG가 보여준 혁신은 사실 그들이 만든 껍질을 깨뜨리는 시도였기에 파격적이고 새롭다. 20세기 DG의 사업은 음악을 신으로, 그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행위는 하나의 종교 의식처럼 추앙시키는 작업이었다. 이런 DG가 21세기에 이르러 이제는 이런 선언을 하고 있다. 무대 위의 영웅과 신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음악은 버스과 지하철 안에서, 혹은 클럽에서, 핸드폰으로도 들을 수 있는 일상의 일부라고 말이다.

글 | 노승림(음악 칼럼니스트,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클럽발코니 10월호 발췌



120

YEARS
DEUTSCHE
GRAMMOPHON



“모차르트를 연주 할 때면
 항상 행복합니다.
 연주를 즐기게 돼요” 조성진



조성진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소나타 3번 & 12번 스탠다드 버전
 + 판타지 3번 디럭스 버전

도이치 그라모폰 세 번째 스튜디오 레코딩



DELUXE VERSION DGG40227



STANDARD VERSION DGG40228

이번 앨범은 아직 네제 세겐이 지휘하는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과 '소나타 K281과 K332'를 수록했다

ALSO AVAILABLE



드뷔시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 발라드

바이올린 여제 안네 소피 무터 펜데레츠키 헌정 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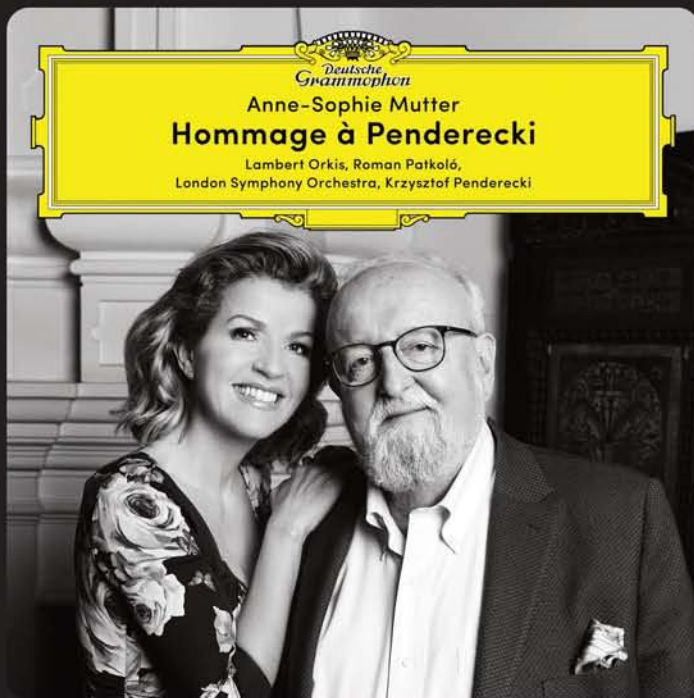
폴란드의 살아 있는 전설
 작곡가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의
 85세 생일을 기념한 앨범이다

펜데레츠키가 무터에게 헌정한
 바이올린 협주곡 2번 - 메타모르포젠과
 <라 폴리아>, <듀오 콘체르탄테> 등이 담겼다

또한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은 펜데레츠키가 작곡하여
 무터에게 헌정한 곡으로 처음으로 스튜디오에서 녹음



안네 소피 무터
 슈베르트
 피아노 오중주:
 송어



Anne-Sophie Mutter Hommage à Penderecki

Lambert Orkis, Roman Patkoló,
 London Symphony Orchestra, Krzysztof Penderecki

MIRACCLASS

박강현 # 정필립 # 김주택 # 한태인

CONCERT

미라클라스 콘서트 로만티카

ROMANTICA

CREDIA

크로스오버의
새 지평을 열다!



2018. 12. 16 SUN 6PM
롯데콘서트홀

“그는 신처럼 노래한다” - 레오 누치

깊고도 풍부한 감성의 목소리,
최정상 바리톤 김주택의 솔로 리사이틀

BARITONE JULIAN KIM

바리톤 김주택 리사이틀

RECITAL

피아노 이영민

2019. 1. 4 ^{FRI} 8 PM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주최 / 주관 | ARTS & ARTISTS

티켓가격

R석 80,000원
S석 60,000원

예매처

예술의전당
02-580-1300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아트앤아티스트
02-3443-9482-3

오페라의
클라이맥스에서
극한의 감동을
느끼다

OPERA CLIMAX

황수미 오페라 클라이맥스

- 특별 게스트 -



바리톤 김주택



테너 김승직



지휘 김덕기
코리아콤포오케스트라

2019. 1. 10^{THU} 8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소프라노 캐슬린 김,
사랑을 노래하다



Kathleen Kim
Recital
Con Amores
캐슬린 김 리사이틀

2019. 2. 17^{SUN} 5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주관 ARTS & ARTISTS

티켓가격 R석 121,000원 S석 99,000원
A석 77,000원 B석 55,000원

예매처 예술의전당 02-580-1300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아트앤아티스트 02-3443-9482-3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Vienna Boys Choir New Year's Concert

2019. 1. 26 (토) - 27 (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매 1544-1555

머레이 페라이어 피아노 리사이틀

Murray Perahia Piano Recital

2019. 3. 5 (화)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빈 메타 & 이스라엘 필하모닉 마지막 아시아 투어

Zubin Mehta & Israel Philharmonic Orchestra Last Asia Tour

2019. 3. 13 (수)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CREDIA

Mercedes-Benz

The best or nothing.



메르세데스 - 벤츠 공식 전시장

서울: 강남 (02)513-3000 강남대로 (02)575-7500 강북 (02)6678-7500 강서 목동 (02)6355-0000 동대문 (02)2215-2233 마포 (02)6010-9000 방배 (02)532-3421 삼성 (02)550-4000 서초 (02)550-5000 서초 청계 (02)6007-0100 송파 (02)3434-4000 영등포 (02)6123-1400 용산 (02)709-3800 중랑 (02)2208-0020 정담 (02)6421-1100 안남 (02)6328-7700 경자: 고양 (02)381-9999 구리 (031)579-0900 부천 (032)713-4500 분당 서현 (031)710-8000 분당 정자 (031)786-6000 수원 (031)740-5000 스타필드 화남 (031)8072-8900 안성 (031)8094-6000 안양 평촌 (031)689-8900 용인 수지 (031)5183-9200 의정부 (031)878-3333 파주 (031)912-9000 인천 (032)770-8800 인천 송도 (032)860-3300 부산: 김천 (051)320-6000 금정 (051)710-2369 남천 (051)750-2000 부산 북구 (051)678-7000 해운대 (051)709-6300 강원: 원주 (033)741-8800 춘천 (033)903-5000 대전 (042)363-2000 대전 유성 (042)602-2000 천안 (041)620-7000 광주 (043)299-9000 전북: 군산 (063)454-8000 전주 (063)226-8000 순천 (061)900-8500 광주 (062)226-0001 대구: 서구 (053)624-2000 포항 (054)256-9001 경남: 마산 (055)296-1004 진주 (055)757-3118 창원 (055)280-8300 울산 (052)701-0503 제주 (064)800-9800

www.mercedes-benz.co.kr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중7단), 복합휘발유모드 연비 (CS연비): 10.2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1.1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6km/kWh (도심연비: 2.6km/kWh, 고속도로연비: 2.8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7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CREDIA

CREDIA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